



언어 액세스 정책

섹션

개요

2011년 10월 6일, 앤드루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 주정부 기관에 제한적영어구사능력(LEP)을 가진 사람에게 언어 지원 서비스(번역 및 통역)를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6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쿠오모 주지사는 영어를 주언어로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또는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된 수백만 명의 뉴욕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뉴욕주민들에게 제한적영어구사능력(LEP) 상태는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잠재적인 장애가 됩니다.

행정명령 26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실무 주정부 기관은 서비스 또는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들 기관은 또한 뉴욕주의 LEP 주민(가장 최근의 미국 인구통계자료 기반)이 구사하는 가장 흔한 6개의 비영어어를 사용하여 양식과 같은 공공 서류를 포함한 중요 서류를 번역해야 합니다.
- 또한 언어접근 코디네이터(Language Access Coordinator)를 임명하고 언어접근 계획(Language Access Plan)을 발행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사용되는 가장 흔한 6개 비영어 언어는 무엇입니까?

현재 상위 6개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페인어
- 중국어
- 러시아어
- 아이티 프랑스어
- 벙골어
- 한국어

관련된 모든 주정부 기관들이 이 6 개 언어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대하는 주민의 필요사항과 기타 연방 요건에 따라 다른 언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접근 계획

언어접근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언어접근 계획은 주민들이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에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기관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 가능한 번역 서류 및 언어, 언어 접근 능력을 갖춘 직원, 교육 계획, 연례 모니터링 계획 및 대민 활동 전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은 언어접근 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뉴욕주민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뉴욕에 거주하는 570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 250 만명은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2013-2017 년 미국 커뮤니티 설문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기준으로, 상위 6 개 언어를 사용하는 제한적영어구사능력(LEP) 주민들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페인어: 1,249,541 명
2. 중국어: 386,290 명
3. 러시아어: 122,150 명
4. 아이티 프랑스어: 63,615 명
5. 벵골어: 62,219 명
6. 한국어: 60,405 명

주정부기관에문의하기

어느 주정부기관이언어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다음 기관들은 각기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언어접근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https://www.ny.gov/language-access-policy#state-agency-contacts>

불만 신고 양식

적절한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쿠오모 주지사가 행정명령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처럼 관련 주정부 기관이 대민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언어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뉴욕주 정책입니다.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적절한 번역 지원 서비스를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관련 주정부 기관의 불만 신고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은 위에 표시된 주정부 기관 연락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이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LanguageAccess@exec.ny.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